

## 무지개를 보고 뛰는 가슴: “타우마제인”

“어린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심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찰 것이다. 산들에 피어나는 꽃 잎 한 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담고도 남는다.”

얼마 전 아이 수학을 지도하다 등짝을 내려친 적이 있었다. 문제를 푸는 방식이 엉성해 보였고,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였다. 그러나 그런 나의 행위를 후회하는 데까지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. 요즘 아이들이 수학에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주입식으로 공부할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. 내 틀에서 보니 아이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되었고, 답답했던 것이었다. 그 순간이 지나고, 한참 동안 나는 사유의 시간을 가지고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, 그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움아매고 있는 미성숙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.

데카르트는 그의 마지막 철학서 ‘영혼의 열정(passion of the soul)’에서 철학하는 힘의 원동력이자 전제로 “타우마제인(Taumazein)”을 이야기했다. 타우마제인은 경이로움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‘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~?’와 같은 현상에 던지는 근원적 호기심으로 정의한다. 나이를 먹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양가성이 있는 듯하다. 하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의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고, 동시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성을 더욱 견고히 쌓고 그 안에 갇히는 과정일 수도 있다. 이 둘을 가르는 황금선은 바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 태도에 있다. “타우마제인”이다.

인간에게 평균수명 100세인 날이 머지않았지만, 인류의 꿈인 장수가 과연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? 노화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병든 몸을 이끌고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이란 말인가?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재미없는 삶이겠는가?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늙어도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? 그렇다!

늙어서도 무지개를 보며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처럼, 어린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심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찰 것이다. 산들에 피어나는 꽃 잎 한 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담고도 남는다.

5월,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숨겨진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 보자.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 해보고 아이들처럼 표정 지어보자. 무엇보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지어보자. 아이들을 닮아 갈수록 우리는 치유되고 본연의 ‘나’가 될 수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.

Written by C.E.O James Roh(노상충)

바람이 불어도 설레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\_ 이현주 詩



James Roh

